

韓國 커뮤니케이션 研究의 動向

—實證的 研究立場을 中心으로—

吳 斗 凡
本研究所特別研究員・清州大教授

目 次

序 言	(4) 커뮤니케이션 理論과 方法論 의 研究
韓國新聞學의 發達 研究와 研究者	(5) 性格과 文化移植 研究
(1) 內容分析 研究	(6) 綜合的 研究
(2) 言論人 研究	結 論
(3) 受容者 研究	

序 言

이 글은 日本慶應義塾大學 新聞研究所의 요청을 받고 필자가 공동명의로 집필하여 1982년 3월 同 研究所 年報에 기고하였던 論文이다. 同學報에 게재 당시 취급하지 못했던 論文이 나중에 발견된 것도 있고, 1982년 이후에 새로이 나온 주요한 論文들도 있었으나 前記 學報에 기고하였던 原稿의 草稿에 약간의 문구상의 가필만을 하여 여기 게재하는 것이다. 이 글의 원래 목적은 隣接 日本에 國內의 研究動向을 소개하려는 것이므로 反省이나 批判보다는 紹介의 努勞를 가지고 執筆하였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本稿의 공동필자인 金圭煥이 1973년 交換教授로 하와이 東西文化센터에 체재할 때, 부여된 課題가 「韓國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 研究의 文獻解題」였다. 이 연구과제에서 美側에서 요구한 文獻은 實證的, 量的, 經驗的 研究成果 위주였다. 그리하여 당시로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하여 수집한 문헌중 과반수가 서울大學校 新聞大學院 碩士論文이었으며 나머지는 新聞學者 이외의 것이 많았던 바 그나마도 總計가 50편을 넘지 못해서 결국 그 문헌조사는 出版을 차후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이번 慶應義塾大學 新聞研究所의 의뢰를 받고 韓國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研究의 動向에 관한 論文을 집필함에 있어 불과 10년 미만의 기간에 量的 質的인 研究力量의 눈부신 成長이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실로 감회가 깊은 바가 있다.

國內에는 新聞學科가 설치된 大學이 15개교에 이르고, 專任研究者의 수도 70명 가까이 되고 있다. 한편 大學의 專任教授 이외에도 매스미디어에 종사하는 現職言論人의 研究論文

이 다수 발표되고 公私立 研究機關에 소속된 研究者도 상당 수 있다.

韓國의 新聞學界에는 대체로 다음의 네 가지 커다란 研究主流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1) 매스미디어 發達史의 研究 또는 歷史的 接近方式을 쓰는 研究者들 (2) 유럽新聞學 系統의 演繹的·解釋的 研究態度를 견지하는 사람들 (3) 美國式 實證的·經驗主義的 立場을 지키는 사람들 (4) 言論의 自由와 法制, 國民의 알 權利 등 規範的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韓國의 커뮤니케이션研究의 動向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상의 네 立場에 대하여 다 言及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들의 概略은 國內의 다른 문헌에서 이미 整理된 바가 있고, 紙面의 관계도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들 입장 중에서 특히 세번째의 實證的 研究成果를 中心으로 최근 20年の 發展過程과 研究動向을 개괄하여 보고자 한다. 다른 세 가지 立場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른 기회에 한 번 整理하여 紹介할까 한다.

實證的 研究의 概觀이라고 하더라도 20餘年間의 모든 研究者들의 國內外에서의 研究活動을 일일이 추적하여 網羅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므로 本稿에서는 이미 國內에서 出版發表되어 필자에게 入手되어 있는 論文을 중심으로 하고 概論書, 教科書, 譯書 등은 제외한 本格的인 研究論文만을 대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韓國新聞學의 發達

韓國에서 最初로 간행된 近代의 新聞은 1883年の 「漢城旬報」였다. 新聞에 대한 관심은 이때로부터 싹트기 시작하였다 하겠으나 最初의 新聞學研究는 獨逸의 라이프찌히大學 新聞研究所에서 新聞學을 연구한 金賢準博士에 의해서였다. 그의 學位論文은 「東洋(韓·中·日)에 있어서 近代의 新聞의 展開에 관한 研究」라는 것이었다.

해방후에는 日本의 上智大學에서 新聞學을 修學한 郭福山教授가 朝鮮新聞學院(뒤에 서울新聞學院)을 設立함으로써 新聞學 胚胎의 계기가 되었고 1955년에는 弘益大學, 1957년에는 中央大學, 1960년에 梨花女子大學에 新聞學科가 設立되었고, 1959년에 郭福山, 崔垓, 張龍의 諸教授에 의하여 韓國新聞學會가 창립되었다.

初創期 新聞學研究는 新聞의 社會的 機能과 역할에 대한 論評的인 글들과 新聞學의 學問됨에 필요한 기초개념의 紹介와 定立에 그쳤고, 新聞의 歷史에 관한 研究, 新聞의 自由와 責任에 관한 문제 등 대체로 歷史的이고 規範的인 研究態度가 지배적이었다.

이것은 朴有鳳教授도 지적하였듯이 「媒體의 傳達現象 및 社會的 役割을 重視하는 입장이었다」고 하겠으며 이는 커뮤니케이션研究史의 발전단계로 보아 레이먼드 닉슨(Raymond Nixon)이 지적한 概念形成과 摸索의 단계에 해당된다 하겠다.

1963년 서울大學校에 新聞研究所가 設立되어 다음해부터 內容分析이나 社會調査에 의한

研究論文이 나와 이른 바 實證的 또는 經驗的 研究風土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金圭煥은 「新聞研究所學報」 제 1호(1964)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韓國의 커뮤니케이션研究는 겨우 出發한 단계에 있다. 그러나今後 그의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립시키지 않으면 안될 2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매스 커뮤니케이션分野에 隣接科學으로부터의 보다 많은 참가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 하나는 經驗的 데이터를 計劃적으로 蓄積하여 그것을 토대로 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機能, 過程, 效果에 관한 理論의 體系化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1964년 이후 매년 간행되고 있는 同學報에는 實證的 研究가 빠짐없이 게재되고 있다. 서울大學校 新聞研究所를 모체로 1968년에는 新聞大學院이 설치되어 그와 아울러 新聞學研究가 다시 활기를 띠고 1970년도부터 많은 新聞學碩士論文이 발표되는 가운데 實證的 어프로우치가 韓國의 커뮤니케이션研究 가운데 定着하게 되었다. 한편 서울 시내의 名門私立大學도 속속 新聞(放送)學科를 중심으로 新聞(放送)研究所를 설립하였다. 1970년도에는 中央大學, 高麗大學, 漢陽大學에 研究所가 설립되었다. 現在 서울 시내의 대학으로 新聞放送學科가 설치되어 있는 거의 모든 大學에 研究所가 설치되어 있고, 1980년에는 中央大學에 新聞放送大學院이 생겨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59年 創立以來 부진상태에 있던 韓國新聞學會가 1968년부터 再開되어 1969년에는 「新聞學報」 제 2호가 간행되었다. 이 시기로부터 韓國新聞學會는 새로운 發展期를 맞이하여 1970년대의 新聞學研究는 본격적인 發展期에 접어들었다. 研究者들은 라스웰(H. Lasswell), 호브랜드(C.I. Hovland), 라자스펠드(P. Lazarsfeld) 등 주로 美國 커뮤니케이션 研究成果를 도입하여 實證的 分析을 활발히 展開하였다. 1970年代 초기는 美國에서 實證的 學風을 배워온 學者들이 교단에 서기 시작하면서 精緻·細練된 研究方法論이 移植되었고 이들의 研究成果가 속속 「學報」에 發表되기 시작하였다.

方法論의 精練化와 더불어 1970년대에는 研究對象의 擴大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가 新聞과 宣傳의 內容分析의 시기였다면 1970년대초에는 農村을 중심으로 한 매스 미디어 受容者調査가 旺盛하게 행하여졌다. 이러한 研究는 주로 필드서베이(field survey)에 의해서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것이었다. 이러한 研究의 주된 目的은 현황 혹은 實態의 把握에 있었던 것이지만, 情報追求, 受容, 認知에 있어서의 2단계흐름의 가설의 검증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受容者 行動에 관한 一般的 知識이나 理論수립을 모색한 것도 있었다.

1960년대 말경 활발하였던 研究分野의 하나로서 新聞, 放送, 通信社 등에 종사하는 言論人의 實態, 勤務條件, 意識, 價値觀 등에 관한 조사가 있었다. 초기의 연구가 주로 實態調査 또는 現象記述의 調査에 지나지 않았으나, 1970년대에는 因子分析(factor analysis) 등의 세련된 方法이 活用되었다.

현실적 문제과약이나 현상기술적 연구가 계속되는 한편 커뮤니케이션을 독립된 學問(discipline)으로서 정착시키기 위한 理論開發과 방법론의 精緻化를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1970年代 前半은 理論形成期로 볼 수도 있다. 60年代에 나타났던 라스웰 등의 內容分析法이나 선전에 관한 理論, 라자스펠드 등의 社會調查에 기초를 둔 오피니온 리더(opinion leader)의 존재, 二段階흐름의 가설 등이 韓國에서도 再調査檢證되었을 뿐 아니라, 1970년 中般에는 호브렌드, 페스팅거(L. Festinger) 등의 態度變容理論을 실험을 통하여 檢證하여 커뮤니케이션理論을 정립하려는 진지한 학풍이 造成되기도 하였다. 研究方法로서는 內容分析이나 社會調查가 여전히 우위를 점하였으나, 實驗室研究(laboratory study)가 새로이 試圖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新聞學은 단순히 “신문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사회적 전달현상을 實證의으로 탐구분석하는 社會科學으로 다분히 行動科學의 性向을 띠게 되었다. 標本設計나 實驗計劃에 관한 方法이 精緻化되었음은 물론이거니와 解析方法도 종래의 간단한 기술통계의 방식에서부터 점차 고도의 洗練된 統計的 解釋法이 도입되어 假說이나 命題의 檢證 뿐만 아니라 요인의 발견에도 實證의 엄밀성이 중요시 되었다.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초에 있어서는 매스미디어의 발신자, 수용자에 관한 기본적 研究, 媒體의 社會的 機能이나 効果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理論研究 등 기존의 연구주류 외에 暴力과 靑少年犯罪問題, 家族計劃, 農業改良, 發展커뮤니케이션, 해외이민의 文化移植에 관한 연구, 異民族間의 이미지 연구, 廣告·販賣·輸出戰略을 위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研究 등 다양한 주제가 새로이 첨가되었고 研究方法에 있어서는 多變因研究가 活潑하여 가고 있다.

1980년대에는 韓國의 커뮤니케이션學은 매스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을 總合的으로 취급하는 社會科學으로서 研究對象의 多樣性和 研究方法에 있어서의 科學性을 추구하면서 급속하고도 착실히 발전하고 있다.

연구와 研究者

다음으로 韓國에서 1981년까지 出版發表된 커뮤니케이션 관계논문 가운데 實證的 分析을 시도한 研究者들과 그 연구에 대하여 기술하겠다. 本稿에서 취급하는 韓國의 커뮤니케이션 研究者들의 연구경향의 분류는 本稿執筆者的 主觀的 판단에 따른 것이며,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는 달리 배열되어야 할 것들이 있을 것이다. 개개 논문의 學史的 位置나 學術的 價値에 대하여는 이미 독자가 각각 평가하고 있을 터이므로 여기서는 다만 연구대상, 방법상의 특징을 가능한 한 平面的으로 기술하겠다. 따라서 分類項目內에서 취급된 論文의 배열순서나 年代가 뒤로 간다 하여 研究의 進化나 方法上的 進歩를 意味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前提하고자 한다.

(1) 內容分析研究

초기 내용분석연구의 대부분은 서울大學校 新聞研究所 研究生들이 당시 新聞研究所講師였던 金圭煥, 崔垓, 張龍 등의 지도하에 행하였던 것이다. 여기서는 주로 당시 유력한 報道·意見媒體였던 「東亞」·「서울」·「朝鮮」·「韓國」 등 여러 新聞의 社說, 記事, 特輯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당시의 政治·經濟上의 주요쟁점이나 그에 대한 報道媒體의 紙面傾向을 추적하고 있다. 예컨대 申瀟休 등(1966)¹⁾은, 당시 중요한 쟁점이었던 韓日協定에 대한 서울 시내 主要日刊紙의 報道內容을 分析하였다. 또 다른 研究生들은 UN軍에 관한 記事의 推移를 분석하기도 하였으며,²⁾ 한편 政治社會의 변혁으로 大統領選舉戰이 치열해지자 與野陳營의 정치적 실득의 양상을 分析하는 研究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던 것이다.³⁾ 그 외에도 新聞의 가장 主要한 意見紙面으로서 社說에 대한 內容分析이 많았는데⁴⁾ 이런 研究들은 종래의 政策提示나 선전의 方式, 紙面內容, 紙面構成 등에 대해 規範的·人文主義的으로 論議하던 方式을 떠나 어떻게든 客觀的이고 數量的인 方法으로 처리하여 다루려는 시도의 반영이라 하겠다.

1970년대에 들어 內容分析은 단순히 報道內容의 요약을 위해서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過程의 다른 變因과의 사이의 關係를 알기 위하여 使用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吳仁煥(1975)⁵⁾은 週刊紙·誌의 煽動的 內容이 靑少年犯罪과 어떻게 상관이 있는가를 分析하기 위하여 週刊紙·誌의 內容分析과 함께 靑少年 독자들의 閱讀行動에 대한 調查分析을 병행하였던 것이다. 崔鍾洙(1977)⁶⁾은 日本新聞의 對韓偏向의 態度를 지적하기 위하여 日本三大紙의 內容分析을 하였던 바, 南韓보다도 北韓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報道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또 다른 內容分析(1981)⁷⁾에서는 維新末期 東亞·朝鮮日報가 政治問題를 社說로 다루기를 꺼려한 事實을 지적할 수 있었다. 李康洙(1980)⁸⁾은 南北平和會談問題에 대하여 日·美·英 3국의 대표적 新聞의 보도를 분석함으로써 이른 바 매스미디어의 보도태도와 心理的 地理的 距離假說(distance hypothesis)을 검증하였다. 韓炳九, 李相禹, 吳仁煥(1976)⁹⁾은 世界市場進出에 있어서의 新聞廣告戰略을 연구하기 위해 韓國의 서울신문

1) 申瀟休, 安東星, 吳根泳, 許準 「韓日 협정에 대한 韓國新聞의 態度分析」 『서울大 新聞研究所學報』 3, 1966.

2) 金泰浩, 鄭壽景, 彭元順, 權詔英 「UN軍에 대한 記事分析」 上揭書, 1, 1964.

3) 朴東銀, 鄭亨壽, 李林揆 「1963년 大統領選舉戰分析」 上揭書, 2, 1965.

4) 金元基, 李鉉夷, 李大勳, 韓昌燮 「新聞社說의 評價」 『서울大 新聞研究所學報』 1, 1964.

王宗光, 金潤根, 朴東銀, 李林揆, 鄭亨壽 「新聞社說調查分析」 上揭書, 2, 1965.

5) 吳仁煥 「週刊紙·誌의 보도내용과 문제점」 『新聞學報』 8, 1975.

6) 崔鍾洙 「日本三大紙의 偏向報道」 金圭煥(編) 『韓國커뮤니케이션研究』 民衆書館, 1977.

7) —— 「社說無用論의 원인 內容분석」 『仁石 朴有鳳박사 華甲紀念論叢』 1981.

8) 李康洙 「南北平和會談에 대한 국제보도 비교연구」 『新聞學報』 특집, 1980.

9) 韓炳九, 李相禹, 吳仁煥 「世界市場 진출에 있어서의 新聞廣告 전략」 『韓國新聞學會研究발표회』 1976.

과 自由中國의 中央日報 廣告紙面에 나타난 美國, 西獨, 日本 관련 廣告의 건수와 스페이스를 내용분석하였다.

(2) 言論人研究

내용분석에 못지 않게 활발한 분야가 매스 커뮤니케이터로서의 言論界從事者에 대한 調査研究이다. 이 研究도 초기에는 實態調査 위주이다가 1970년대에는 메시지 인코더(encoder)로서의 기능적인 측면에 焦點을 둔 研究가 많아졌다. 60년대에는 新聞界從事者(李康洙外, 1964)¹⁰⁾, 放送從事者(金潤根, 1968)¹¹⁾, 地方言論人(曹大熙, 1971)¹²⁾의 실태와 意識에 관한 기초 기술적인 調査가 進行되었다.

徐正宇(1970)¹³⁾는 國際커뮤니케이션의 主要에이전트인 駐美外國人特派員을 대상으로 특과원의 資質, 職務內容, 미디어使用, 態度 등을 調査分析하여 많은 기초적 데이터를 얻었다. 이 연구에서 駐美特派員이 주로 의존하는 美國內의 情報源은 미국의 매스미디어임을 지적할 수 있었다.

吳鎮煥(1972)¹⁴⁾은 大學新聞의 편집장 연구에서 大學新聞의 편집장들이 大學新聞의 性格과 機能을 어떻게 概念規定하는가를 스티븐슨(William Stephensen)의 Q-方法에 의하여 要因分析하였다. 피조사자의 意見의 폭을 擬似正規分布에 割當(Q-sort)케 하여 이로써 주어진 의견들에 대한 개인의 태도점수 간에 상호관계를 산출한 다음 主因子方法(principal component method)에 따라 最初因子行列表(factor matrix)를 얻은 다음 다시 이를 直角回轉시켜 最終因子를 얻었다. 이 方法에 의해 1970년경 大學新聞의 編輯長들은 輿論指導型, 獨立型, 自由批判型의 3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다.

비슷한 方法에 의해 李康洙¹⁵⁾(1980)는 KBS, MBC, TBC 등 TV 3社의 P.D.(Programme Directors)들의 文化意識을 분석하였다. P.D.들의 文化意識, 大衆에 대한 共益觀念, 프로듀서들의 役割意識 등에 관련된 72개의 의견문항을 52명의 포본응답자에게 Q-sort하게 하여 要因分析한 결과 公營放送인 KBS 소속 P.D.들과 民營放送인 MBC, TBC의 P.D.들이 서로 다른 묶음의 意識類型을 나타냈다. 이러한 類型性은 P.D.들의 담당직종이 演藝娛樂部門이나 社會教養部門이냐에 따라서도 같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研究者는 이 두 가지 타입에 아무런 自然言語의 命名은 삼가하였으나 Type I (商業放送·演藝娛樂)은 대중문화 機能論者요 Type II (公營放送·社會教養)는 그 역기능을 먼저 염려하는 部類라고 할만 하였다.

10) 李康洙, 韓斗錫, 李海明 「한국 新聞人の 實態와 意識에 관한 調査」 『서울大 新聞研究所學報』 1, 1964.

11) 金潤根 「韓國放送人の 실태와 意識에 관한 調査」 『서울大 新聞研究所學報』 4, 1968.

12) 曹大熙 「地方言論人の 실태와 意識構造」 『新聞學報』 4, 1971.

13) 徐正宇 「외국특과원의 職業과 태도에 관한 연구」 『韓國커뮤니케이션研究』 民衆書館, 1977.

14) 吳鎮煥 「한국대학 신문학생 편집장의 意識形態에 관한 研究」 『新聞學報』 5, 1972.

15) 李康洙 「韓國에 있어서의 TV·PD의 文化意識」 『新聞學報』 7, 1974.

全國 日刊新聞·通信社에 근무하는 實務言論人들의 役割觀에 관한 연구는 吳仁煥, George Won, 李相禧(1974)¹⁶⁾, 吳仁煥(1974)¹⁷⁾ 의해 발표되었다. 言論이라는 직업이 갖는 地位(Status)에 대한 “교육”, “위신”, “영향력”, “수입수준” 등의 각 차원에 대한 언론계종사자 자신의 評價에 일관성이 적은 것을 地位不一致(Status Inconsistency)라고 정의할 때 이 地位不一致는 職業에 대한 滿足도와 관계가 있으며, 그 결과가 결국 言論界離職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 연구가설이었다. 연구 결과 言論이란 職業이 갖는 地位(Status)의 몇몇 次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教育水準次元으로서 기타 차원에 대한 評價가 教育水準에 부응하는 그것에 미치지 못할 때 記者들은 전직을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위의 발표에서 言論人들의 役割을 ① 國家次元의 役割觀, ② 對政府·讀者에 대한 役割觀, ③ 社內階層이나 職員相互間의 役割觀으로 나누었을 때도 예기했던대로 뒤로 갈수록 調査對象言論人들의 態度에는 불일치도(dissidence)가 높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金圭·崔昌燮(1978)¹⁸⁾은 1976년 이후 TV의 프라임타임대에 強化編成된 이른바 社會教養프로에 대해 프로그램의 送出者로서의 방송종사자들이 어떻게 知覺하는가를 調査分析하였다. 방송종사자들은 社會教養프로그램은 가치있고 필요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概念이 광범하고 분명치 못하여 제작에 어려움이 있다는 意見을 갖고 있었음이 발견됐다. 프로그램 制作擔當者 자신이 社會教養프로그램에 대해 적절한 概念規定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스구드(Osgood)의 意味分別尺(Semantic Differential Scale)에 의해 밝혀질 수 있었다.

(3) 受容者研究

세 번째로 활발하였던 분야는 수용자의 매스미디어 접촉성향·접촉행동에 대한 調査研究(survey research)였다. 初期의 研究對象으로는 대도시 일반 독자나 청취자가 아니라 주로 농촌의 수용자가 중심이었으며, 研究方法는 주로 質問紙나 面接을 통한 조사연구였다. 당시에 대도시나 一般讀者 聽取者조사 대신에 農村受容者에 대한 연구가 왜 活潑했었던가는 확실히 판단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도 당시의 농촌이 革新(innovation)의 採用모형을 검증하는 現場으로서 적절할 뿐 아니라 農村의 近代化가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는 데에 原因이 있었지 않았던가 한다. 또 하나는 라자스펠드나 카츠(E. Katz) 등의 커뮤니케이션의 二段階의 흐름 모델은 우리나라의 農村과 같은 單位集團에 응용하기가 용이하였다고 하는 事情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한다.

1970년대 初까지의 농촌커뮤니케이션의 연구는 農村의 한 마을에 대한 事例研究(金潤根

16) 吳仁煥, George Won, 李相禧 「Status Inconsistency와 離職」 『新聞學報』 7, 1974.

17) 吳仁煥 「한국 言論人의 역할觀」 『韓國커뮤니케이션研究』 民衆書館, 1977.

18) 金圭, 崔昌燮 「TV社會教養프로그램의 效果의 編成과 制作을 위한 調査研究」 『新聞學報』 11, 1978.

外1966¹⁹⁾, 吳仁煥1968²⁰⁾, 金石薰1970²¹⁾, 曹大熙1971²²⁾)가 많아 가설검증이나 문제해결보다는 주로 실태분석적으로 1회적 記述的 서어베이 연구(one-shot descriptive survey research)가 많았다.

受容者研究의 또 하나의 주요한 成果로서 李康洙(1968²³⁾, 1975²⁴⁾, 朴玉春(1975²⁵⁾) 등의 兒童과 TV에 관한 研究를 들 수 있다. 이들 研究에서는 兒童의 TV視聽實態와 準據集團(父母들)과의 影響관계가 밝혀졌다. 특히 李康洙(1975)는 兒童에게 미치는 TV의 影響을 어린이의 生活背景(準據集團背景)과 TV視聽量, 프로그램選好, TV視聽動機, 父母와의 關係, 結婚觀, 殺人에 관한 感受性, 人生目標 등과 관련시켜 광범하게 調查研究하였다.

兒童과 매스미디어의 關係는 人格發達, 行動發達, 社會化過程 등과 관계되는 力動的 또 多變量的인 문제이다. 이에 관한 본격적 연구는 教育學·心理學 등의 隣接諸科學과의 협력에 의한 學際的 接近(interdisciplinary approach)과 長期에 걸친 累積的·實驗的 追跡研究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本格的 研究프로젝트는 아직 준비되지 않고 있는 實情이다.

TV의 一般視聽者의 視聽傾向 등에 관한 研究는 印雲燮(1969)²⁶⁾에 의해서 進行되었다. 그의 TV視聽率에 대한 時系列(time series) 分析은 프로그램 視聽率·嗜好性向 등에 관한 概念과 그 分析方法의 엄밀성에 이바지 하였다. 放送에 있어 編成의 立場은 커뮤니케이션 자극입장, 수용자의 接觸은 반응의 立場이 된다. 흥미로운 것은 編成者의 立場에서 할당된 내용상의 重要性의 비중(proportion)이 수용자에게서 視聽하는 時間量으로 본 反應의 비중과는 큰 격차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1969년 보도프로의 編成比는 전체프로그램 19.5%인데 대하여 視聽時間量은 8.1%에 지나지 않았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 TV보급이 全國가구수의 95%를 넘게 되어 TV의 媒體重要도가 커지면서 커뮤니케이션研究關心이 TV 중심으로 집중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金圭煥(1977)²⁷⁾은 MBC 大邱放送局의 視聽率과 視聽者의 TV프로그램에 대한 評價狀況을 分析 發表하였다.

李康洙, 彭元順, 鄭大澈(1980)²⁸⁾은 韓國商業 TV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放送發信者 측면의 實態分析(institutional process analysis), 프로그램의 內容分析(message system analysis), 視聽者調查(cultivation analysis)를 동시에 綜合的으로 기획하였다. 이 研究를 통

19) 金潤根, 鄭壽景 「農村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서울대 新聞研究所學報』 3, 1966.

20) 吳甲煥 「韓國農村발전과 매스 커뮤니케이션」 『韓國커뮤니케이션研究』 1977.

21) 金石薰 「受容者의 사회적 속성과 매스미디어 接觸度」 『서울대 新聞研究所學報』 6, 1969.

22) 曹大熙, 金一鐵 「大都市隣近農村의 커뮤니케이션」 『서울대 新聞研究所學報』 8, 1971.

23) 李康洙, 李尙魯, 元佑鉉, 李春杰 「텔레비전과 兒童」 『서울대 新聞研究所學報』 4, 1968.

24) 李康洙 「兒童과 TV의 關係에 있어서 考察」 『新聞學報』 8, 1975.

25) 朴玉春 「TV가 兒童의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研究」 『서울대 新聞研究所學報』 11, 1974.

26) 印雲燮 「TV 시청의 特性 및 요인에 관한 研究」 『한국커뮤니케이션 연구』 1977.

27) 金圭煥 「TV 시청률 및 프로그램가치에 관한 調查」 『서울대 新聞研究所學報』 14, 1977.

28) 李康洙, 彭元順, 鄭大澈 「한국상업 TV 방송의 問題性에 대한 考察」 『言論學報』 1, 1980.

하여 制度的 側面的 문제로서 放送經營上의 독립, 프로그램制作의 韓國의 閉鎖體制 止揚, 大衆人氣 프로그램으로서의 드라마의 문제점 등을 지적할 수 있었다.

(4) 커뮤니케이션理論과 方法論의 研究

앞서의 연구들이 모두 內容分析이나 社會調查方法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의 現實의 問題 해결에 기여한다는 研究特徵을 갖는 데 대하여 實驗을 통한 커뮤니케이션理論의 수립에 관심을 集中하는 傾向도 나타났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實驗研究의 基本模型은 S·M·C·R·E의 각 요소중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을 變數(variable)로 하고 다른 要素를 統制하였을 때 생기는 效果를 검증하여 理論化하는 것이다. 社會調查가 일상적 環境하에서의 現象을 斷面的(cross-sectional)으로 포착하고 기술하는데에 대해 實驗的 研究는 실험실에 있어서 變因統制를 자유로이 하여 行動 또는 態度의 力動性(dynamism)을 관찰할 수 있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각각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研究方法間의 相互補完과 交流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實驗的 또는 行動科學的 研究는 “붙들린”聽衆(captive audience)에 제한된 실험을 행한다는 단점은 있으나 諸要因의 效果를 微細精密하게 식별해서 질서정연하고도 체계적인 人間 커뮤니케이션理論을 수립하는데 기여하는 주요한 方法이라 하겠다.

車培根이 이러한 研究의 代表的인 研究者이다. 그는(1972)²⁹⁾ “弘報學과 態度變容의 研究와 論理的 均衡說”에서 종래의 하이더(Heider), 페스팅거(Festiger) 등의 態度變容과 認知 均衡에 관한 理論을 경험적으로 검증했다. 페스팅거(Festiger) 등의 認知的 均衡의 假說이 그리스의 古典的인 定言의 三段論法(categorized syllogism)에 적용될은 이미 맥과이어(W. McGuire)에 의하여 입증되었던 바, 車培根은 이를 톨민(Stephen E. Toulmin, England) 論法에 적용하였을 때도 成立됨을 증명하였다. 주어진 여러개의 話題에 대한 常識의 眞理를 나타낸 여러개의 命題를 톨민論法에 따라 構成, 事전에 被驗者의 의견구조를 측정한다. 實驗에 의해 이들 信念을 변화시키는 反對메시지에 접촉시킨 결과, 被驗者들의 信念 가운데에는 內的 均衡狀態를 維持하기 위해서 이들 信念과 論理的으로 關聯된 다른 여러 信念도 동시에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確認할 수 있었다.

커뮤니케이션의 實驗研究에 있어 實驗狀況을 달리하는 文化권의 被驗者에게 적용되었을 때 그 結果에 일반성이 있다고 할 것인가가 東洋에서의 커뮤니케이션研究者의 주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다. 自由中國의 경우 國立政治大學의 츄(Godwin Chu)가 제니스와 필드(Janis & Field) 등의 美國人 男女의 皮셜특성향 實驗을 中國에서 再檢證하여 美國의 경우와 같은 結果를 얻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車培根(1974)³⁰⁾은 防空施設, 癌, 古典音樂,

29) 車培根 「弘報學과 態度變容의 研究와 論理的 均衡說」 『新聞學報』 5, 1972.

30) 車培根 「韓國메스컴 수용자의 皮셜특성향에 관한 비교 文化권적 實驗研究」 『서울大 新聞研究所學報』 11, 1974.

TV 廣告 등의 토픽을 중심으로 被驗者의 피설특성향에 대한 제니스와 피일드(Janis와 Field)의 實驗을 韓國의 學生을 대상으로 再檢證하였다. 研究結果는 美國과 中國에서 發見된 性格과 被說得性向과의 상관관계는 韓國의 경우는 거의 成立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研究는 東洋文化圈과 歐美文化圈간의 커뮤니케이션行動의 격차를 발견하고 같은 東洋文化圈에서도 나라와 民族에 따라 어떻게 같으며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分明히 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

吳斗凡(1974)³¹⁾은 제니스와 페쉬바하(Janis & Feshbach)의 위협적 커뮤니케이션의 說得效果를 被驗者의 自我關與와 相關시켜 實驗하였다. 즉 제니스와 페쉬바하에 의하면 높은 恐怖의 메시지는 수용자의 防禦的 逃避現象(defensive avoidance)을 일으키기 때문에 낮은 恐怖의 메시지보다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吳斗凡의 경우 實驗變因에 自我關與(ego involvement)를 介入시켰을 때는 前例의 他研究들의 假說을 轉覆하는 것을 發見할 수 있었다. 즉 높은 恐怖라도 높은 自我關與의 경우에는 높은 態度變容效果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다시 그는(1978)³²⁾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적 메시지에 의한 韓國人과 美國人과의 態度變化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一面對兩面커뮤니케이션 실험모형으로 호브랜드 제니스(Hovland & Janis) 등의 研究를 韓國人 被驗者에게 반복하여 보았다. 前記 호브랜드 등의 실험에서 美國人은 一面메시지에 대하여 兩面메시지가 더 效果的이라고 결론을 얻은 데 비하여 이 研究의 결과는 韓國人의 경우 兩面메시지보다 오히려 一面메시지에 더 效果的 反應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實驗操作의 變因統制의 差에 의한 것인지, 또는 文化的 差異에 의한 것인지는 차후의 계속적인 研究에 의하여 解明될 문제라고 본다. 이런 研究類型은 서울大學 新聞大學院碩士論文中에서 많이 나타나 公信力의 效果에 대한 실험, 맥과이어 등의 집중 이론에 대한 실험, 先提示 後提示 효과에 대한 실험 등이 나타났고, 집단커뮤니케이션연구로서 役割劇(role play)과 논제로 섬게임(non-zero-sum game)의 실험도 試圖되었다.

實證的 方法論의 摸索과 커뮤니케이션의 實際問題에 있어 經驗的 方法의 運用은 이미 1960年代 中頃부터 胚胎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간 커뮤니케이션研究의 적절한 方法에 대하여는 많은 論議와 反省·批判이 행하여지고, 1970년 후반에는 研究方法에 관한 저서가 발간되었으나 研究方法論自體에 대한 實證的 研究論文이 本格的으로 나타난 것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였다.

吳澤燮(1981)³³⁾은 의견조사에 있어 質問者의 속성에 따라 應答者가 自身의 身分을 밝히면

31) 吳斗凡 「威脅的 커뮤니케이션의 說得效果」 『한국커뮤니케이션研究』 1977.

32) 吳斗凡 「일면대양면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관한 비교문화권적 실험연구」 『서울大 新聞研究所學報』 15, 1978.

33) 吳澤燮 「Respose Strategies in Interpersonal Administration of Questionnaire」 『커뮤니케이션科學』 4, 1981.

서 應答하는가와 匿名으로 應答하는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應答의 偏向(slant)에 관하여 實驗하였다. 각기 실험조건을 달리하는 15명씩의 4개 집단(N=60)에 대한 연구에서 ① 서베어의 質問源이 질문내용에 관계된 주어진 職業集團에 관련있는 身分임이 明示되고 ② 質問의 내용이 주어진 職業集團에 관해 建設的 方向의 내용이고 ③ 應答者の 姓名 등 身分이 應答紙에 明示된다는 條件下에서 실험의 結果는 有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應答者는 統制集團에 비하여 應答의 方向을 質問者가 기대할 方向으로 應答하는 傾向이 있다는 것이다.

吳澤燮(1980)³⁴⁾은 新聞의 讀者調查 方法에 있어 平面的인 퍼센트처리로 많이 읽히는 기사는 강력하고 적게 읽히는 기사는 배제하는 종래 方式의 개선점을 살리기 위하여 因子分析을 사용한 메컴(M. McCombs)의 理論을 中央日報 讀者調查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 研究에서 제안하는 바는 실제 독자조사 結果로 관찰컨대 적게 읽히는 記事라도 他記事와 연관되어 읽히는 것이 아니라 獨立的으로 읽히는 경우에 排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方法上 또 하나의 進展은 言論自由에 대한 새로운 指數化 可能性으로서 秋光永(1981)³⁵⁾이 發表한 研究를 들 수 있겠다. 그는 로웬스타인(Lowenstein)의 기존의 PICA 指數 산출 方法이 要因分析의 技法을 적용함으로써 상당히 合理的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立證하였다. 言論의 自由와 統制에 대한 國際比較 같은 문제는 規範的 문제로서 評價者의 主觀등이 개입할 여지가 많았고 計量化를 한다고 하더라도 로웬스타인의 方法에 의한다면 각종의 言論 統制要因이 되는 變因을 무게(weight)없이 하나의 指數로 표현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었다. 秋光永이 시도한 바 因子分析을 도입하는 새 方法을 사용하면 國際諸國 言論統制의 양상이 政治的·法的 차원, 經濟的 차원, 社會倫理的 統制의 3개의 차원으로 구분돼서 효율적으로 評價될 수 있다.

한편, 새로이 意見·이미지·態度調查의 技法으로서 갈릴레오 메소드(Gallileo Method)가 朴興洙 등에 의하여 學會에 紹介되고, 一部の 學者들이 그 研究方法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이 方法을 써서 實施한 研究物이 出版되어 나온 적은 없는 듯하다.

(5) 性格과 文化移植研究

이제부터 記述하려는 研究는 研究方法이나 研究對象에 있어 앞의 研究들과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니다. 다만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에 걸친 研究業績의 量的 質的 擴大를 별개의 항목에 묶어 정리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기술하는 研究도 研究方法의 脈絡에서 본다면, 앞의 調查研究의 연장이지만 그중에서 보다 理論的인 數篇의 研究는 이 항목에서, 그리고 보다 실제적이고 戰略的인 색채를 띤 研究는 다음의 項目에서 整理하고자 한다.

34) 吳澤燮 「新聞讀者調查의 새로운 方法과 그 적용」 『新聞學報』 특집, 1980.

35) 秋光永 「言論統制의 다원적 측정」 『朴有鳳 박사 華甲記念論叢』 1981.

崔昌燮(1974)³⁶⁾은 매스미디어 접촉과 영향관계를 受容者の 社會人口學的 背景에 관하여만 고려하지 않고, 性格(personality)개념을 도입하였다. 視聽者에게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 先有傾向(predisposition)으로 폭력 및 공격성과 이에 관련된 성격요소가 있다. 또한 이들 수용자에게는 폭력프로그램 趣向性的 性格과 非暴力프로그램 趣向性的 性格型的 구분이 생긴다. 이 兩趣向性은 暴力프로그램에 대하여 選擇的 接觸(selective exposure) 현상으로 귀결되고 이에 따라 前記의 先有傾向과 이들 選擇的 接觸性向이 結付될 때에 暴力프로그램의 社會的 影響問題가 생길 것이라고 假定하였다. 研究의 結果 ① TV暴力 프로그램의 높은 趣向性은 大學教育을 받은 기혼의 中產層男性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으며 性格上으로는 敵對意識에서 오는 葛藤이 강하고 외향적 적대심이 강하고 神經過敏的으로 統制力이 不足한 유형인 사람 중에 많았다. ② TV 非暴力 프로그램의 趣向性은 中上層의 비교적 經濟的 基盤이 잡힌 세대의 여성과 50세 이상의 장년층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으며 性格上으로는 攻擊熱望型 중에서 많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元祐鉉(1976)³⁷⁾은 個人的 價値意識과 매스미디어 使用類型과의 상관성을 在美韓國移住民을 中心으로 調查分析하였다. 즉 在美韓國移住民의 경우 그의 價値意識은 移住國의 言語의 選好性 등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커뮤니케이션과 상관 있을 것이며 이런 것이 文化移植의 程度를 말하는 指標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L.A 지역 美國移住者 53명을 副標本으로 하여 먼저 그들의 가치의식을 잴다. 이 가치의식의 측정결과는 主因子分析法(principle components method)에 의하여 文化同化型, 二重文化型, 土着文化型으로 三分되었다. 副標本에서 주의깊게 얻어진 要因值에 따라 研究變因이 가려진 뒤 本標本 151명에 대해서 연구문제를 확대검증했다. 그 결과 價値와 年齡, 滯美期間, TV臺數, 라디오臺數, 新聞購讀數, 定刊物購讀數가 有意하게 相關됨을 보였다. 이 研究 역시 價値와 같은 자못 抽象的이기 쉬운 속성을 計量的으로 分析하면서 문제가 되는 因子(factor)의 발견에 注意를 기울인 연구였다 하겠다.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研究가 金永年(1977)³⁸⁾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移住된 사회에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그 社會에 대한 意識構造가 복잡화한다. 移住한 사회에의 言語能力이 높을수록 그 社會에의 참여도가 높다. 移住社會의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접촉도가 높을수록 그 사회에의 커뮤니케이션 參與가 높다. 이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시카고 일대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러한 假說이 대체로 立證되었다. 研究者가 回歸分析(regression analysis)을 통하여 얻은 결론에 의하면 外國移住者의 意識構造의 복잡도는 人的 커뮤니케이션(personal communication)에 의해서는 31%가, 매스커뮤니케이션에 의해

36) 崔昌燮 「Personality Traits and Program Preference Regarding Violence on TV」 『新聞學報』 7, 1974.

37) 元祐鉉 「文化移植과 매스미디어 選好性研究」 『韓國커뮤니케이션研究』 1977.

38) 金永年 「文化移植過程에 있어서 외국 移住者의 커뮤니케이션形態」 『韓國커뮤니케이션研究』 1977.

서는 41%가 說明되었다고 한다.

在美 韓國僑胞 問題에 관해서 洪起宣, 金點坤, 韓炳九, 李京子(1980)³⁹⁾는 對韓安保觀을 綜合的으로, 그리고 洪起宣(1980)⁴⁰⁾은 특히 커뮤니케이션 側面을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인 在美교포의 미국 시사문제 관심도나 한국 시사문제 관심도가 사회적 층적 특성, 미국 사회정착도, 한국 사회유대도 등의 變因에 의하여 어떻게 說明되는가를 보기 위하여 이들 變因간에 相互相關 係數를 산출하고 回歸分析(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들 研究結果에 의하면 移住者의 定着度를 說明하는 요인은 移住者의 英語水準, 學歷, 滯留期間, 年齡 등이었다.

(6) 綜合的 研究

1970년대 후반에는 몇개의 가족계획의 弘報戰略에 관한 研究가 발표되었다. 金圭煥(1978)⁴¹⁾은 「家族計劃의 弘報戰略研究」에서 家族計劃에 대한 大邱市 中流·下流·農村社會 可姪夫婦들의 認知, 態度, 實踐의 程度와 매스 미디어 접촉상황, 퍼스널 미디어 접촉상황을 조사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제 요인과의 상관성에 있어 戰略的으로 上位에 있는 미디어와 기타 전략적 요인을 추출해 내었다. 연구결과는 가족계획에 있어 성공적인 미디어로서 매스 미디어보다는 퍼스널미디어가 전체적으로 유효하였다. 농촌으로 갈수록 퍼스널 미디어로서 계몽원의 역할이 중요하였으며 도시 中流層에서는 매스미디어중 新聞이 媒體公信力의 비중을 크게 가짐을 알 수 있었고, 都市下流나 농촌에서는 라디오의 機能이 지배적임이 발견되었다.

金智子(1974)⁴²⁾는 가족계획과 동시에 벼의 品種改良의 弘報戰略研究를 京畿道 農村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매스미디어 접촉도는 農村近代化와 家族計劃에 대한 態度와 正的의 相關關係에 있음이 밝혀졌다. 또 啓蒙員의 역할은 품종개발보다는 家族計劃의 경우에 重要的 要因이 되고 住民 동료간에 교환되는 非公式對話가 가족계획이나 近代化에 대한 態度에 영향을 주는 主要한 要因임을 알 수 있었다. 비슷한 主題의 研究가 金圭, 崔昌燮, 全煥盛, 비네츠키(W. Biernatzki)(1980)⁴³⁾ 의해 수행되었다. 즉 포드재단의 연구지원을 받아 이 研究者들은 서어베이研究와 實驗研究를 결합하여 戰後世代에 대한 人口 및 家族計劃 教育을 위한 매체 및 메시지 전략연구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1970년대 후반 커뮤니케이션研究의 綜合的이고 應用的인 측면에서 가장 컸던 研究프로젝

39) 洪起宣, 金點坤, 韓炳九, 李京子 「在美僑胞의 對 韓安保觀에 대한 研究」 『新聞學報』 13, 1980.

40) 洪起宣 「在美同胞의 시사문제 관심도와 매스미디어 露出度에 관한 調査」 『新聞學報』 特集 1980.

41) 金圭煥 「家族計劃의 弘報戰略研究」 『서울大學校 新聞研究所學報』 13, 1976.

42) 金智子 「A Search for Integrated Communication Strategies in Promoting Family Planning and Rice Production Innovations」 『新聞學報』 7, 1974.

43) 金圭, 崔昌燮, 全煥盛, W. Biernatzki 「戰後世代에 대한 인구 및 家族計劃 教育을 위한 매체 및 메시지 戰略研究」 『서강커뮤니케이션 研究學報』 1, 1980.

트의 하나가 「韓日間커뮤니케이션 겹」에 관한 研究였을 것이다. 이 研究는 日本 側에서 辻村明教授가 主宰하고 韓國에서 金圭煥이 주재하여 양국의 社會科學者들이 참여하여 韓日兩國에서 同時에 행한 국제적인 共同研究였다. 이 프로젝트는 ① 輿論調査에 의한 양국의 對相對國家 내지 對相對國民에 대한 이미지의 실태 調査 ② 양국 新聞의 相對國관계 報道에 대한 內容分析 ③ 相對國 이미지나 態도의 變化를 가져오는 데 어떤 情報가 필요한가에 관한 實驗研究의 세 측면의 接近이 시도되었다. 韓國 側에서 日本 滞在 有經驗者와 無經驗者간의 對日 이미지 차이에 대한 調査研究은 金圭煥·吳仁煥에 의해 1978, 79년에 실시되었다. 國內新聞의 內容分析은 崔鍾洙가, 態度變容에 관한 실험적 研究은 서울大 心理學科의 李將鎬가 맡았다. 이 研究報告는 일부만이 발표되었을 뿐⁴⁴⁾ 完全한 報告書는 日本에서 近刊될 예정이다.⁴⁶⁾

徐正宇·車培根, 崔昌燮(1976)⁴⁷⁾은 駐韓美國人을 대상으로 韓國과 韓國人에 대한 이미지의 調査分析을 행하였다. 이 研究에서는 보가더스(E. Bogadus)의 人種間 距離指數(racial distance quotients)가 援用되었다. 보가더스가 20년전에 행한 一般的 연구에 비한다면 駐韓美國人의 韓國에 대한 이미지는 현격하게 改善된 상태에 있음을 볼 수 있었다.

結 論

과거 20여년간에 걸친 韓國커뮤니케이션 研究의 動向을 概觀할 때 研究의 量的 擴大는 물론 質的으로는 눈부신 向上을 보게 된다.

本稿에서 취급된 論文이외에도 더 많은 우수한 研究가 있었지만 紙面의 關係와 필자들의 不注意로 빠뜨린 研究가 있을 것이다. 또 筆者들의 關心의 초점을 몇 군데에 집중시킨 나머지 당연히 취급되어야 할 논문이 빠진 경우도 있을 것이다.

韓國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研究의 草創期에는 主된 研究對象은 新聞社, 放送局, 新聞紙面, 放送프로그램의 울타리내에 머물러 있던 느낌이 있었으나 研究對象은 점차 擴大되었다. 매스미디어 受容者로서의 公衆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행동과 그를 둘러싼 社會狀況, 社會構造와의 力動的 關係에 관한 行動科學 또는 社會科學으로서 着實히 發展하여 가고있다.

研究計劃, 標本選定, 資料處理, 統計分析, 檢證의 技法 등 方法上的 進展도 實로 눈부시게 발전되었다. 많은 大學에서 커뮤니케이션關聯의 研究所가 설치되고 그것들을 發판으로 韓國의 커뮤니케이션 研究者들은 活潑한 研究活動을 하게 되었다.

44) 金圭煥 「異民族間的 이미지 形成에 관한 考察」 『서울大 新聞研究所學報』 16, 1976.

45) 金圭煥 同上

46) 辻村明·生田正輝(編著) 『日韓 커뮤니케이션 겹의 研究』 出光書房近刊豫定

47) 徐正宇, 車培根, 崔昌燮 「駐韓美國人의 韓國에 대한 이미지 調査研究」 『新聞學報』 9, 1976.

끝으로 최근의 연구경향에 대해 一言한다면 서로 다른 方法이나 專攻分野間의 활발한 研究交流가 行해진다. 예컨대 종래에는 歷史的 人文主義的 어프로치를 하던 연구자는 實證的 經驗的 方法을 倚면한다든지 實證的 分析을 專門으로 하는 研究者는 歷史를 도외시 한다든지 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分野와 分野사이 方法과 方法사이 活潑한 交流에 의해 內容의 多樣性을 가지면서 보다 긴밀한 綜合의 方向을 指向하고 있고 그에 따라 問題 解決力도 높아가고 있다고 본다.